

부산종친회 제50차 정기총회 개최



안동 권씨 부산종친회(회장 권영현)에서는 지난 5월 16일(토) 오전,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총회의 권영창 회장을 비롯하여 권길상 대총회 고문, 권영호 수석부회장 그리고 권문의 며느리인 김희정 국회의원과 합천종친회에서 권성규 회장, 권영록·권남욱 전 회장 등 여러분이 참석하고, 인근의 김석조 경주김씨 부산종친회장과 광산김씨, 김녕김씨 종친회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부산종친회 제50회 생일을 축하해 주어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날 총회는 부산종친회 권재목 고문, 권중원 원로회장과 천등회장을 지낸 권영훈·권춘식 자문위원 등 여러 원로와 종친회 임원진 및 각급 단체장 및 일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먼저, 권정수 부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시조님에 대한 망배 후에 권재문 부회장의 종시 낭독이 이어졌다. 표창 순서에서는 퇴임한 권춘식 천등회장, 권부현 청년회장, 권정희 부녀회장에 대한 공로패와 상품권을 수여하였고, 장학생으로 선정된 동현, 현지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아울러 신임 권영희 부녀회장과 권덕립 청년회장에게는 부회장 위촉장이 각각 전달되었다.

이어서 권영현 부산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참석한 내빈과 종친 회원께 감사 인사를 전한 다음, 세태 변화에 따라 종친회가 예전 같지 않으니 모든 종친이 더욱 관심과 열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또, 역점사업인 “종친회 50년사” 발간에 따른 원고와 자료 제출, 발간 섬금 모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어 권영창 대총회장은 축하사에서 전국 모범인 부산종친회의 50년 생일을 축하하고, 부산종친회와 부산부녀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앞서, 일정상 먼저 나온 김희정 국회의원, 김석조 전 부



공로패 수상, 권춘식 천등회장, 권정희 전 부녀회장, 권영현 회장

산시의회 의장의 축하 인사가 있었으며, (사)성씨연합회 총재인 권길상 고문은 격려사에서 부산종친회 50년을 자축하며, 총회 준비에 애쓴 권영현 종친회장 등 집행부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친 모두가 힘과 뜻을 한마음으로 모아 종친회 부흥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진 총회는 경과보고, 감사보고를 거쳐 회칙 개정 및 49차 결산보고 등 준비된 의안을 상정, 처리한 다음, 부녀회와 함께 권문의 노래를 제창하고, 권춘식 자문위원 선장으로 만세삼창을 부른 후 1부 폐회와 함께 총회 및 단체별 기념 촬영을 진행하였다.

중식(간식) 배부 후에는 정기총회의 대미인 2부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을 통하여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많은 족친들의 협찬과 함께 식전 공연으로 무대를 빛낸 부녀회 권옥태 고문, 화장품 등 경품을 기증한 권우진 부회장 등에 힘입어 총회가 더욱 빛났으며, 족친 간 화합과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

부산 사무국장 권채영

병오년 태동서원 춘향례 봉행



지난 5월 11일(음 3월 25일) 오전 10시 경남 합천군 조계면 유하리 소재 태동서원(泰東書院, 원장 金鎮雄) 내 송덕사(崇德祠)에서 병오년 춘향례가 봉행되었다. 태동서원은 영남 유학의 거목인 유학자 추연 권응현(秋淵 權龍鉉)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서원으로 생전에 저술 활동과 제자들을 가르친 태동서사가 있던 자리이다. 선생이 돌아가신 1987년 11월 8일 이후부터 매년 음력 3월 25일 석전제(釋奠祭)를 이어오다가 2012년 지금의 건축물이 준공된 뒤부터 태동서원으로 개칭하고 해마다 향례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병오년) 향례의 초헌관은 전남 장성 필암서원의 도유사를 지낸 김성수(金盛洙) 장성축협조합장, 아헌관에는 학교장 출신 정옥영(鄭玉永) 영일 정씨(鄭氏) 포은(圃隱)종약원 이사장, 종헌관에는 단성향교(丹城鄉校) 전교(典校)를 역임한 조현제(趙賢濟) 씨 등이 택정(擇定)되었다. 아울러 집례(執禮)는 담양 전씨(潭陽田氏) 중앙종친회 부회장인 전완수(田完秀) 국방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축관(祝官)은 한국전례원 예절지도사를 지낸 이응만(李應萬) 나주향교 수석장의(掌儀)가 맡아 진행하였다.

시간이 오전 10시에 이르자 외임 전임수, 문병국의 향례 개시 선언에 이어 김진웅(金鎭雄) 원장의 인사말씀을 경청한 다음, 경향각지에서 참례한 40여 명의 유학자들이 절차에 따라 향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예필(禮畢) 후에는 추연 선생의 문인 조동영(趙東永) 박사가 독서잡(讀書籤), 교경경타잡(矯經警箴籤)에 대한 강독이 이어졌다. 두 문장은 추연 선생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로 선생께서 후학을 위해 학



문의 목적과 마음가짐을 설파한 글귀이다. 이번 향례에는 추연 선생의 초기 문인 중 저명한 유학자인 김영주(金永柱) 선생의 자제들이 처음 방문하고, 또 한성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양대 사학과 출신 등 4인의 신진 학도가 참여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문득, 추연 선생께서 조계향교 중수기(草溪鄉校 重修記)에서 밝히신 “사당의 형태와 집을 수리하는 것은 외적 인 일일 뿐이다. 오직 이 일로 말미암아 준수하고 제주 있는 젊은이들을 향교의 담장 안으로 불러 들어 그들로 하여금 강상(綱常)과 예의(禮義)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또한, 배우고 익히도록 하여 수천 년 전하여 내려온 道를 떨어뜨리지 않고 훗날 다시 회복할 기반이 된다면 지난 일 중 으뜸이라는 칭찬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떠올려 본다.

부산 사무국장 권채영

2026년도 (재)능동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2026년도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영창)는 국민대학교 권지혜 학생을 비롯한 장학생 16명을 선발하여 제52차 안동권씨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올해 장학금 기부자는 권병돈 전 상임위원이 100만원을 기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연번	이름	성별	학교	학년	추천인
1	권지혜	여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3	대총회
2	권민호	여	부산대 초등교육과	4	대구
3	권범준	남	안동과학대 바이오백신제약학과	2	북아강파
4	권용진	남	한양대 기계공학과	2	능곡회
5	권소연	여	호서대 애니메이션학과	2	능곡회
6	권영준	남	전북대 공학계열1	1	영주
7	권도예	여	포항대 호텔조리커피제빵과	2	포항
8	권용우	남	동국대학교 의예과	2	정조공파
9	권가륜	여	경국대 수학교육	1	파종협의회
10	권남훈	남	경북대 식품자원 경제학과	3	파종협의회
11	권아현	여	목원대 수학교육과	1	시중공파
12	권 정	남	울산대 기계공학	4	안동
13	권태연	남	경국대 무역학과	4	호정공파
14	권현중	남	전북대 과학교육학부	4	시중공파
15	김동민	남	한국교통대학교경영물류학과	1	대총회
16	권영현	남	한성대 컴퓨터공학	3	추밀공파

포천 양근공 종중 회원 양촌 권근 삼대묘소 참배



추밀공과 양근공(楊根公) 종중(회장 권오민) 회원 35명이 4월 25일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참배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은 삼대 묘소의 조성 내역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權近 1352

~1409) 선생과 아들 지재공(止齋) 권제(權趾, 1387~1445) 손자 소환당(所閑堂) 권람(權攀, 1416~1465)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

안동권씨 대총회 제20대 권혁홍 회장 취임식 이모저모



권노갑 고문이 축사하고 있다.



신임 권혁홍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 대총회 제20대 회장에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이 5월 27일 디노체넌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안동권씨 대총회 제52차 정기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추대되어 취임했다. 제19대 권영창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권혁홍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안동권문을

위해 봉사한 권영창 명예회장에게 감사장과 행운의 열쇠 및 공로패를 증정했다. 권정달 명예회장을 비롯한 권노갑 고문, 권영

세 국회의원과 권오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경자 제55대~57대 사임당을 비롯한 아들과

딸 및 손자 등 가족 모두 권혁홍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신임 권혁홍 회장이 권영창 명예회장(오른쪽)에게 공로패 증정



권길상 고문이 대한민국 만세, 안동권씨 대총회 만세, 안동권씨 100만 족친 만세라는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케익을 커팅하고 있다.



권혁홍 회장 가족